

일본과 중국의 고령화와 고용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인구고령화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이미 상당수 국가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며, 또 향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다만, 그 속도에 있어 다른 국가에 비해 두드러지게 빠른 고령화를 경험해 왔거나 곧 경험하게 될 몇몇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군(群)에 바로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동북아 국가인 중국, 일본 또한 이에 포함되어 있다.

먼저, 일본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온 국가이다. 현재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인구가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고령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내년(2018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예정이며, 향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일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일본과 한국에 비해서는 고령화 수준이 낮은 편이지만 모든 국가 중에서는 고령인구가 가장 많으며, 향후 우리나라에 비견될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빠른 속도의 고령화는 국가 내 다른 여러 영역에서의 급격한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고용구조의 변화이다. 이는 인구고령화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고용구조의 변화는 동북아 3개국 정책이해관계자들에게 고령자 인력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고민 혹은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정책대안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호 국제노동브리프에서 소개하고 있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대책은 우리나라가 향후 고령자 관련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판단된다. 나카야마 아키히로(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글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고령자 고용대책은 연령을 기준으로 투트랙 전략, 즉 65세까지는 최대한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고, 그 이후로는 ‘평생현역사회’라는 기치 아래 나이와 관계없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전략을 함께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공공고용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고령자의 재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시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의 고용 프로그램이 일본의 경우만큼 포괄적·체계적으로 구축되지는 못한 편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사례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가 향후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더해, 중국의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책적 함의를 정리한 첸윈(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노동과학연구소)의 글 역시 일본 사례와 다른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비록 일본 사례연구와 같이 구체적인 중국 내 고령자정책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자 고용대책을 고민함에 있어 지역 간의 차이, 특히 도·농 간의 차이를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농 및 지역 간 고령자 구조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향후 고령자 고용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자칫 간과하기 쉬운 지역적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판단된다.

이상의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령자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고령자 고용문제는 단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다른 인구구조 논의와 마찬가지로, 인구고령화라는 주제가 젊은 세대를 포함한 전(全)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논의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고령자 고용이라는 주제는 국민 전체의 안녕(well-being)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즉 모든 국민이 직접적 이해당사

자인 주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국제노동브리프에 소개한 두 글이 향후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정책의 발달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안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KLI**

참고문헌

- 김복순(2016), 「고령화와 고용: 실태와 정책 과제」, 제14차 동북아 노동포럼 발표자료.